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4. 1. 29.(월) 11:00 이후(1. 30.(화) 조간) / 배포 : 2024. 1. 29.(월)

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

- 부산(본사)·김해-인천공항 기반 중장거리 중점 취항… 지역화주 물류비용 절감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「항공사업법」제7조에 따라 **화물전용항공사 '시리우스항공'**에 1월 29일 **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**하였다.

○ **부산**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**김해공항-인천공항**을 기반*으로 **미주·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**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.

* 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취항 희망(자세한 사항은 참고 첨부)

○ 이에 국토교통부는「항공사업법」제8조에 따른 **재무능력, 사업계획 적정성** 등 **면허기준**과 제9조에 따른 **결격사유** 등에 대한 심사, 이해관계자의 **의견수렴**('23.9.27~10.16)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**면허자문회의**('24.1.23)를 거쳐, **신규 면허발급을 결정**하였다.

○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**안전운항증명**(AOC : Air Operator Certificate) 등을 획득해야 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향후 **운항증명(AOC)**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·정비규정, 운영기준 등 **서류검사**와 시범비행 등 **현장검사**를 거쳐 **인력·장비·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**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.

□ **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**은 "시리우스항공은 **김해공항**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, 나아가 **가덕도 신공항**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, **지역 화주**의 물류비용 절감과 **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한다"며,

○ 특히, "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**경쟁을 활성화**하고, **우리 수출입 기업**에 **다양한 선택권을 제공**할 것으로 기대"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강윤진 (044-201-42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시리우스항공 사업계획** ※ 사업자측 제출자료 재구성

□ (설립) '20.4월 설립, 본사 **부산광역시 동구**

□ (자본금) 5,017,336,000원('23.10월 기준)

□ (대표) 권도균

□ (운항개시예정일) '24년 6월 1일*

* 단, 운항증명(AOC) 검사 일정 및 발급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(주요 사업전략) **부산항과 김해공항**을 연계하여 **Sea&Air 복합운송**으로 수요 확보, 향후 **가덕도 신공항** 개항 시 취항 목표

* 김해공항-인천공항 취항 예정(김해공항 50% 이상 취항 목표)

○ (항공기) **1차년**도 4**대**, 2~4차년도 **6대** 등 화물전용기 **10대 도입** 추진

구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
도입 (누적)	A330F 3대, B777F 1대 (누적 4대)	B777F 2대 (누적 6대)	B777F 2대 (누적 8대)	B777F 2대 (누적 10대)

○ (노선계획) 1년차 **프랑크푸르트·나리타·하노이·칭다오** 취항, 2~3년차부터 **LA·시카고**를 포함한 **미주 노선** 등으로 노선 확대 예정

구분	'24년	'25년	'26년	'27년
노선계획	프랑크푸르트, 칭다오, 하노이, 나리타	+LA, 싱가포르,	+시카고, 델리	+아틀란타, 멕시코시티, 비엔나
운항편수	주 28회	주 40회	주 52회	주 60회